

105호 2026 08월 15일

발행인: 김하룡 / 편집인: 김태식 / 편집: 박시은 / 편집디자인: 실크로드 인도네시아

Tel. : 021-5010-4614/15 E-mail : kogaindonesia1@gmail.com 광고문의 : 0821 1122 8827
Add: komp. Graha Cempaka Mas Blok A No. 11, Jl. Letjen Suprpto, Jakarta Pusat

한국 봉제산업을 선도하는

KOGA

Vol. 105

KOGA



오롬 (OROM) 컨설팅

ITAS - ITAP - SILVER VISA

PENDIRIAN & DOKUMEN PERUSAHAAN

021-45856898/4207/4911/4910

법인설립 (PMA & PMDN)

SUHADA : 0812-97598638

WINDA : 0811-8821462

visa.orom@gmail.com

www.orom.co.id

indocity1991

2027년
카렌다 제작
021 5010 4614/5
0858 9060 0962
pt.kwangaeto@gmail.com
탁상용 / 벽걸이등

KOWEB INDONESIA
홈페이지
제작 합니다
0812 9354 7052
yoon@koweb-indonesia.com
카카오 ID : rickyoon

한국으로
꽃 배달은
0816 95 4414
kakao ID jihyun64
근조화, 축하 화환등

빠르고 정확한
명함제작
0858 9060 0962
021 5010 4614~5
pt.kwangaeto@gmail.com



재인도네시아 한국 봉제협회
KOREA GARMENT ASSOCIATION IN INDONESIA

한국계 의류업체, 적자 누적으로 현지 공장 폐쇄 결정



▲삼원부사나 인도네시아 즈빠라 공장 전경 (사진=PT Samwon Busana Indonesia 홈페이지)

한국계 의류제조업체 삼원부사나 인도네시아(PT Samwon Busana Indonesia)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지속적인 적자로 인해 오는 8월 1일 중부 자바 주 즈빠라 공장을 영구 폐쇄한다. 이로 인해 근로자 약 680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회사는 중부 자바 스마랑 공장은 계속 운영할 예정이며, 인도네시아 사업을 철수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22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산업부의 페브리 헨드리 안토니 아리프 대변인은 21일 성명을 통해 “삼원부사나 인도네시아는 인도네시아에서 철수하거나 사업을 완전히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즈빠라 공장의 운영을 재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회사 경영진을 소환해 즈빠라 공장의 적자 원인과 근로자 권리 보장, 주문 물량과 생산설비의 스마랑 공장 이전 계획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또 노동부와 협력해 노사 문제 해결 과정을 감독하고, 퇴직금과 기타 근로자 권리가

인도네시아 법령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보장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부 산하 산업인적자원개발청(BPSDMI), 인도네시아섬유협회(API), 인도네시아경영자협회(Apindo), 중부 자바 지역 의류업체들과 협력해 해고 근로자의 재취업 기회를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한국 본사와도 접촉해 인도네시아에 대한 장기 투자 의지를 유지하도록 협의하는 한편, 미국 주요 바이어들에게도 의류 주문을 경쟁국으로 이전하지 말고 인도네시아에 계속 발주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페브리 대변인은 “피해를 입은 근로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투자 환경과 인도네시아 의류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지키기 위한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정부의 대응은 인도네시아 의류산업이 글로벌 의류시장 수요 부진과 생산비 상승, 경쟁 심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2015년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시작한 삼원부사나는 코로나19 이전 약 2,200명의 직원

을 고용했지만, 특히 미국 바이어의 주문 감소로 퇴사 인력을 충원하지 않으면서 직원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들었다. 즈빠라 공장 인사담당자인 파우판 아디 수실로는 21일, 회사 제품 대부분이 미국 시장에 판매됐으며, 주문 감소는 2023~2024년에 가장 심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적자가 계속 누적되면서 결국 즈빠라 공장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파우판은 공장 폐쇄가 투자 환경이나 노사관계 때문이 아니라 주문 부족에 따른 것이라며, 인도네시아의 투자 환경과 노동력 공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즈빠라 공장은 영구 폐쇄되며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회사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근로자들에게는 관련 규정에 따라 통상적인 퇴직금의 50%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2027년
카렌다 제작
021 5010 4614/5
0858 9060 0962
pt.kwanggaeto@gmail.com
탁상용 / 벽걸이등

한국으로
꽃 배달은
0816 95 4414
kakao ID jihyun64
근조화, 축하 화환등

인니, 대량 해고 대응 태스크포스 출범... 최대 15만 개 일자리 위기



▲2025년 해고된 이흥 노바텍스 노동자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자료사진=유튜브 캡처]

인도네시아 노동계가 최대 15만 개의 일자리가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경고하자, 정부가 대규모 해고를 막기 위한 대량 해고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이 가운데 약 55,000명은 세라믹 산업 종사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량해고 대응 태스크포스 책임자로 임명된 프라세트요 하디 국가사무처 장관은 정부와 국회, 노동조합이 이날 재정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파악하고 해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태스크포스에는 노동부, 국회, 노동조합, 그리고 경찰 노동전담 부서가 참여해 인력 감축 위험이 있는 기업을 모니터링하고 대응 방안을 공동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수프리 다스코 아흐마드 국회 부의장은 정부와 국회가 잠재적인 대규모 해고를 사전에 막고 노동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제조업 경기 둔화와 공급망 제약으로 여러 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나왔다. 노동조합은 브카시에 있는 대형 세라믹 공장 두 곳이 산업용 가스 공급 부

족 등의 영향으로 문을 닫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약 55,000명의 근로자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프라세트요 장관은 해고 원인이 특정 산업에 집중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일부 기업은 수요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일부는 경영난을 겪으면서 자금 조달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태스크포스는 이미 근로자를 해고했지만 퇴직금이나 기타 법적 의무를 아직 이행하지 않은 기업들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전국에서 23,470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한편, 나이키(Nike)와 푸마(Puma)에 제품을 공급하는 평타이 인도네시아 엔터프라이즈(Feng Tay Indonesia Enterprises)는 신규 주문을 기다리는 동안 서부자바 공장 근로자 약 4,000명을 휴직 조치했으며, 이에 따라 향후 추가 해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또한 동부자바의 자동차 부품업체 두 곳이 생산시설을 베트남으로 이전할 계획이라는 보도에 대해서도 진화에 나섰다. 프라세트요 장관은 정부의 중재로 해당 이전 계획이 보류됐다고 밝혔다.

[데일리인도네시아]



PT. DONG JUNG INDONESIA
EXPORTER - IMPORTER - POLYBAG MANUFACTURER

PT. DONGJUNG INDONESIA는 1991년 설립 이래, 34년동안 성실히 일해왔고 빠른 납기와 최상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항상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T. +62 21 440 3926
F. +62 21 440 3944

sales@dongjung.net
bhjangjkt@gmail.com
kenleejh@gmail.com



www.dongjung.net

인니 중앙은행 총재 사임 여파...루피아 다시 1만8천대로 약세

인도네시아 루피아화는 27일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 빠리 와르지오 총재의 전격 사임 소식에 투자심리가 위축되면서 다시 달러당 18,000루피아 선을 넘어 약세로 돌아섰다. 최근 루피아 강세를 이끌었던 달러 약세보다 국내 정치 변수의 영향이 더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날 루피아 환율은 달러당 18,009루피아로 마감해 전 거래일보다 0.26% 하락했다. 지난주 심리적 저항선인 18,000루피아 아래로 내려섰던 상승분 일부를 반납한 것이다. 외환시장 분석가 루끄만 레운은 “미 달러 약세와 중동 지정학적 긴장 완화로 루피아가 강세를 보여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중앙은행 총재 사임이 루피아와 인도네시아 증시 모두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이날 아시아 외환시장에서 달러는 미국이 이란에 대한 군사 작전을 중단하면서 중동 긴장이 완화되고 국제유가가 하락한 영향으로 주요 통화 대비 약세를 나타냈다. 그러나 루끄만은 현재는 글로벌 요인보다 국내 정치 상황이 루피아 가치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빠리 총재 사임 소식이 없었다면 루피아는 달러 약세에 맞춰 강세를 보였을 것”이라며 “당분간 투자자들은 국내 정치 상황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주요 미국 경제 지표 발표를 주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루끄만은 이번 주 루피아 환율이 달러당 17,900~18,150루피아 범위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하면서, 지정학적 여건이 지



▲인도네시아 루피아 지폐

속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환율이 17,500루피아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회복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시장 불확실성을 줄이고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정부가 조속히 중앙은행의 정식 총재를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후임 총재가 임명될 때까지 데스프리 다마안티 수석부총재를 총재 권한대행으로 임명했으며, 후임은 뿌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과 국회가 관련 절차에 따라 선임할 예정이다.

뿌르마따은행의 조수아 빠르데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투자자들이 아직 빠리 총재 사임의 파장을 평가하는 단계라며 시장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고 말했다. 루피아 약세와 증시 하락뿐 아니라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도 상승했는데, 이는 투자자들이 중앙은행 수장 교체에 영향을 아직 명확히 판단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조수아는 “시장이 이번 사태를 소화하는 과정에 있다”며 새 중앙은행 총재 임명과 향후 통화정책에 미칠 영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은 총재 개인이 아니라 이사회 회의의 공동 의사결정으로 운영되는 만큼, 총재 교체가 곧바로 정책 변화로 이어질 것으로 볼 필

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빠리 총재가 재임 기간 인도네시아의 거시경제 안정을 유지하는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27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이번 총재 교체를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니라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정책 신뢰성을 시험하는 계기로 보고 있다. 후임 인선이 지연되거나 정부 개입 논란이 불거질 경우 루피아와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으며, 향후 중앙은행의 정책 결정도 정치적 시각에서 해석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뿌라보워 대통령이 개인적인 사유를 이유로 제출된 빠리 총재의 자진 사임서를 공식 수리했다고 밝혔다. [자카르타글로벌/자카르타경제신문]

인니 ‘370조 루피아’ 비상금 투입 논란... 의회 “절차 위반” 강력 반발

재무장관, 중앙은행 비상금 370조 루피아 시중은행 예금으로 전환
“대출 늘려 경기 부양” vs “의회 승인 없는 편법, 환율 방어 차질”

인도네시아 정부가 경기를 살리겠다며 중앙은행에 잠자고 있던 정부 잉여 예치금 370조 루피아(약 30조 원)를 시중은행으로 옮겨 투입하면서 큰 논란이 일고 있다고 20일 자카르타포스트가 보도했다. 여기서 정부 잉여 예치금(인도네시아어 SAL·Saldo Anggaran Lebih)이란 정부가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이월금과 잉여금이 쌓인 일종의 ‘국가 비상금’이다. “대출 물고 트자” vs “의회 무시한 편법” 뿌르바야 유디 사데와 재무장관은 시중은행의 유동성 부족

이 기업 대출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중앙은행 계좌에 있던 예치금을 국영은행 예금으로 전환해 시중에 저리 유동성을 공급했다. 은행이 저리로 확보한 자금을 바탕으로 대출을 적극 늘리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의회 재정위원회 소속 야당(투쟁민주당) 의원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국가예산법상 비상금 운용은 국회의 사전 승인이 필수적임에도 절차를 무시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정부가 지난 6월 예치금을 한 차례 회수하자 시중은행에 즉각 ‘자금 가뭄’이 발생하



▲뿌르바야 유디 사데와(Purbaya Yudhi Sadewa) 재무장관 [출처: 재무부 웹사이트]

는 등 정책 혼선도 드러났다. 의회의 거센 질타가 이어지자 뿌

르바야 장관은 “방침을 재검토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전문가 “환율 방어력 약화 및 정부 의존성만 키워” 금융 전문가들 역시 이번 조치가 실물 경기를 살리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첫째는 ‘환율 방어력 약화’ 문제다. 중동 분쟁 등으로 루피아화 가치가 하락하는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환율 방어에 투입해야 할 비상 자금이 시중은행에 묶여 버렸다. 둘째는 ‘은행의 자생력 약화’다. 페르마타 은행의 조슈아 파르데데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은행들이 정부가 돈을 대출 것

이라 믿게 되면 체질 개선을 게을리하고 위험한 대출을 늘릴 수 있다”며 “정작 국가 재정이 위급해져 돈을 빼내야 할 때 큰 충격이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셋째는 ‘실물 경기 부양 효과’의 의문이다. 대출 지표 자체는 상승했으나, 전문가들은 기업들이 신규 투자나 공장 증설보다는 기존 빚을 갚는 ‘차환 대출’에 돈을 쓰고 있다고 분석했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기업들이 선뜻 새 빚을 얻어 투자에 나서지 않기 때문에, 은행에 돈만 풀어준다고 해서 실물 경기가 살아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데일리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스크린 골프 1등 설치 업체

설치업체 : 신발, 의류공장 기숙사 / 탄광, 발전소 현장사무소 / 개인주택 / 고급별장 / 아파트, (영업용) 루프, 대형빌딩, 백화점

착한가격/완벽한 시공/신속한 A/S

인니 최초 스크린골프(16년차)시장 개척중
인니 전지역 (200대 이상 설치) 풍부한 노하우
영업점: 롯데에비뉴 5층, 땅그랑, 버카시
신속한 A/S팀 운영중
이용료없이 무제한 사용가능

직원 복지용(다용도) 스크린룸 활용

다양한 골프연습 모드가능
직원간 화목한 스크린게임 이용
영화감상/노래방/운동경기 관람
온라인 화상회의 가능

특별 할인 행사 중고제품 1대 : 99 juta

WA / Call : 0815 7456 8000 (Mr Lee Jung Gi)
Email : vgolf03651@gmail.com
Kakaotalk : golf 03651



미국 무역법 301조 강제노동 관세, 인도네시아 ‘10%’ 최종 확정

인도네시아 정부, 상호무역협정(ART) 이행 불구 추가 관세 직면… 팜유·섬유 등 면세 혜택 상쇄 우려 속 18개 품목 예외 협상 총력

미국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강제노동 관련 관세 조치를 최종 확정하는 가운데, 인도네시아가 10%의 관세 부과국으로 이름을 올렸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국의 관련 법령 정비와 미국과의 무역협정 체결 등을 근거로 선처를 호소했으나, 최종적으로는 차등 관세 적용 대상에 포함되면서 현지 경제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 23일(현지시간) 발표한 세부 적용 기준 및 주요 배경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 적용되는 최종 관세율은 10% 수준으로 결정됐다. 이는 법 제도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12.5%의 최고 관세율이 부과된 한국, 일본, 중국 등에 비해서는 다소 완화된 조치이나, 인도네시아 경제부처와 수출 기업들에는 적지 않은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 ‘1단계 그룹’ 분류로 10% 적용… 배경은?

USTR은 이번 조치에서 총 19개 경제권을 10% 관세 적용 국가(1단계 그룹·Compliance Posture)로 지정했다. 인도네시아는 이 그룹에 포함되어 비교적 양호한 평가를 받았다.

인도네시아가 상대적으로 낮은 10% 세율을 적용받게 된 결정적 배경은 강제노동 수입 금지와 관련된 실질적 법적 조치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는 정부 규정(No.9/2026) 등 관련 법령을 완비하고 있으며, 미국과의 상호무역협정(ART)을 통해 강제노동 생산품의 공급망 차단을 약속한 바 있다. 이 그룹에는 인도네시아를 비롯해

캐나다, 멕시코, 영국, 인도,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등 총 19개국이 포함됐다.

반면, 강제노동 상품 수입 규제 및 실행이 미흡하다고 평가받은 중국, 브라질, 싱가포르, 베트남 등은 일률 12.5%의 추가 관세가 부과되었으며, 한국·일본·스위스는 ‘기존 최혜국대우(MFN) 관세 + 301조 관세 = 최종 12.5%’의 상한선이 적용되는 별도 그룹으로 분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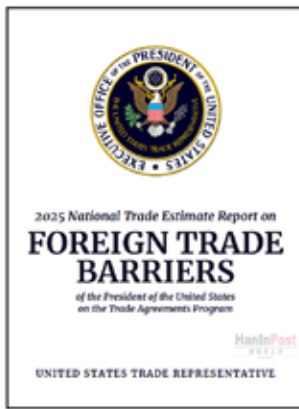
팜유·섬유 등 무역협정(ART) ‘0% 면세’ 혜택 상쇄 위기

이번 미국의 301조 추가 관세 조치로 인해 인도네시아의 대미 무역 전략에도 비상이 걸렸다. 인도네시아는 앞서 지난 2026년 2월 미국과 무역협정(ART)을 체결하고, 팜유, 섬유, 의류 등 1,819개 품목에 대해 ‘0% 관세(면세)’ 혜택을 보장받은 바 있다.

그러나 이번 무역법 301조에 따른 추가 관세가 도입됨에 따라, 공들여 체결한 무역협정의 면세 효과가 상당 부분 상쇄될 위험에 처했다. 공급망 타격을 우려한 인도네시아 정부는 현재 미국 정부를 상대로 총 18개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한 관세 면제(Exemption)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특히 여기에는 현지 프리포트(Freeport-McMoRan)가 생산하는 구리 음극재 등 국가 핵심 수출 품목들이 포함되어 있어, 향후 예외 인정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구조적 과잉생산 조사 등 잠재적 추가 리스크 상존

설상가상으로 인도네시아는 이번 강제노동 조사 외에도 또 다른 통상 압박에 직면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서 발간한 2025년 외국의 무역장벽 연례 보고서

있다. 미국은 무역법 301조를 통해 ‘구조적 과잉생산(Excess Capacity)’ 조사를 동시에 진행 중이며, 인도네시아

는 한국, 중국 등과 함께 이 조사 대상국(총 16개국)에도 포함되어 있다.

통상 전문가들은 향후 과잉생산 조사 결과가 발표될 경우,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대상국들에 추가적인 관세 패키지가 얹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경제부처는 미국 USTR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긴밀한 대응 체제를 가동 중이다. 한편, USTR은 미국 내 심각한 공급망 혼란과 경제적 타격을 방지하기 위해 471개 이상의 필수 품목을 이번 301조 추가 관세 대상에서 일괄 제외했다. 여기에는 무역확장

법 232조 관세를 이미 적용받고 있는 철강, 알루미늄, 구리 및 자동차·부품류가 포함되며, 석유, 가스, 비료, 의약품 원료, 반도체 생산 장비, 민간 항공기 부품 등도 필수 품목으로 분류되어 중복 부과를 피했다.

미국 USTR이 지난 3월부터 착수한 ‘구조적 과잉생산’ 관련 301조 조사의 최종 결과는 향후 수개월 내에 발표될 예정이어서,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글로벌 통상 시장의 불확실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한인포스트]

프라보워, 전 국민 무상급식 프로그램 전면 재검토 지시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이 국가영양청(BGN)에 무상영양급식(Free Nutritious Meals)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 기준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다고 16일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현재의 보편적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가장 취약한 계층을 우선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모든 초·중·고교 학생과 유아, 임산부 및 수유부가 무상 영양급식 지원 대상이다.

아구스티나 아를사리 국가영양청(BGN) 부처장은 대통령이 프로그램 수혜 대상 기준을 재검토해 저소득 가구, 낙후 지역, 아동 발육부진 비율이 높은 지역에 지원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



▲무상급식을 제공받은 인도네시아 어린이 [국가영양청]

다고 밝혔다. 아구스티나 부처장은 지난 15일 대통령궁에서 열린 내각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대통령께서는 더 이상 무상 영양급식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은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반면 최저소득 계층과 낙후 지역, 그리고 발육부진 발생률이 높은 지역 주민들은 계속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또한 프로그램 급식 제공 방식도 재검토하도록 지시했다. 현재 규

정상 급식은 정부가 지정한 영양공급서비스센터(SPPG)를 통해서만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아구스티나 부처장은 대통령이 급식 공급이 하나의 방식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다른 운영 모델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검토 중인 방안 가운데 하나는 학교 매점이 급식 제공에 참여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부처장은 “대통령께서는 더 나은 대안이 있다면 다른 방식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은 하나만 있어서는 안 된다”며 “영양공급서비스센터에서 발생한 운영상 문제와 비위 의혹을 포함해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할 것도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데일리인도네시아]



PT. JASON LOGISTIC INDONESIA

글로벌 물류 전문 파트너

Your Professional Global Logistics Partner

장기적 비즈니스 성장을 함께하는 물류 파트너



Air Cargo



Sea Cargo



Warehouse



Customer Service

JASON 지사

중국: 상하이, 광저우, 선진, 샤이먼, 청도
베트남: 호치민, 하노이
대만/한국

Ruko Gading Kirana Blok C10 No.10, Kel. Kelapa Gading, Kec. Kelapa Gading, Jakarta Utara 14240 Indonesia

Telp: 021-45855919 | Email : cs.team@jli.kr

한국담당자: 박치성 +62 821 1210 0051 | 현지담당자: HENDRA +62 898 1142 2911

인니, 플라스틱 포장재 생산자에 폐기물 처리비 부담 의무화



인도네시아, 2026년 해고자 2만3천 명 넘어... 경제학자들 경기 둔화 경고



인도네시아에서 해고 사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가계 구매력 약화가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을 위협하면서 대규모 해고가 전반적인 경기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제학자들이 경고했다고 26일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이 같은 경고는 인도네시아 경제가 견조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나왔다.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사이의 괴리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인도네시아 경제개혁센터(CORE Indonesia)의 유습 렌디 마닐렛 경제학자는 장기간 지속되는 해고가 인도네시아 GDP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계 소비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유습은 전날 “구매력 하락은 수요를 위축시키고, 기업들은 생산을 줄일 수밖에 없다. 이는 다시 추가 해고를 촉발할 수 있다”며 “이 같은 악순환은 중기적으로 경제성장을 둔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유습은 인도네시아가 직면한 주요 과제는 더 이상 단순한 경제성장 둔화가 아니라 충분한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하는 ‘성장의 질’ 문제라며, 5%를 웃도는 경제성장률은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그 성과가 노동시장 여건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며, 경제는 계속 성장하지만 일자리 창출 능력은 악화되는 이른바 ‘고용 없는 성장(jobless growth)’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에 따르면 2025년 투자는 약 12.7% 증가했지만 고용은 약 10.4% 증가하는 데 그쳤다. 동시에 일자리 하나를 창출하는데 필요한 투자액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유습은 “다시 말해 추가 투자가 창출하는 일자리 수가 갈수록 줄어든다고 있다는 의미이며, 이는 경제성장이 아직 진정한 포용적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수출 수요 약화와 지정학적 불확실성 증가 등 세계 경제의 역풍이 기업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국내의 구조적 문제가 더 큰 과제라고 주장했다.

인도네시아는 높은 에너지 비용, 산업 경쟁력 약화, 규제 불확실성, 저가 수입품 유입 등의 문제를 계속 겪고 있다. 이러한 압박으로 인해 인도네시아 최대 고용 산업에 속하는 섬유·의류·신발 등 노동집약적 산업의 성장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유습은 또한 투자 증가가 고용 확대로 이어지지 않는 이

유로 투자의 상당 부분이 광물 다운스트림 산업과 기초금속 등 자본집약적 산업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들 산업은 부가가치 생산과 수출을 늘리는 효과가 있지만 생산 과정에서 기술과 자동화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노동 수요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투자 효율성도 여전히 문제로 지적됐다. 인도네시아의 한계 자본계수(ICOR)는 개선됐지만 여러 역내 국가와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는 높은 물류비, 복잡하고 긴 행정 절차 등 경제의 비효율성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계자본계수(Incremental Capital Output Ratio)는 경제성장을 위해 얼마나 많은 추가 투자가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이와 함께 높은 산업용 가스 가격과 저가 수입품과의 경쟁도 기업의 이윤을 계속 잠식하고 있다. 유습은 “이윤이 줄어들면서 많은 기업이 신규 고용을 확대하기보다 자동화를 통한 효율성 향상을 선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습은 정부가 단순히 투자 규모를 늘리는 데 그치지 말고 투자의 ‘질’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재정 인센티브를 정규직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고, 노동집약적 산업에는 에너지·물류비용 인하와 덤핑 행위 등에 대한 더욱 엄격한 감독을 통해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경제적 성공은 높은 GDP 성장률만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며 “경제성장이 생산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민 복지를 폭넓게 개선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경고는 여러 산업에서 해고가 계속되는 가운데 나왔다. 인도네시아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8만 8천 명이 넘는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었으며, 2026년 1월부터 5월까지 추가로 2만3,470명이 해고됐다. 최근에는 틱톡이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인력을 감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수치는 인도네시아의 경제성장 실적과 대조를 이룬다. 인도네시아 중앙통계청(BPS)에 따르면 2025년 GDP 성장률은 5.11%를 기록했으며, 2026년 1분기에는 5.61%로 높아졌다. 이는 견조한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고용 흡수력이 악화되는 역설적인 상황을 보여준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모두 70만 5,932명의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었다.

가자마다대학교 사회정치학부의 타주딘 노에르 에펜디 교수도 대규모 해고가 경제·사회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해고는 공개실업을 증가시키고 가계소득과 구매력을 떨어뜨리며, 피해 가정의 빈곤 위험을 높이고 잠재적으로 범죄율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타주딘 교수는 해고 급증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로 무역부장관령 제8/2024호에 따른 수입 규제 완화를 꼽았다. 이 정책은 원자재 수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시행됐지만 국내 노동집약적 산업의 경쟁을 더욱 심화시켰다는 것이다. 그는 “이 정책은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며 “국내 산업, 특히 섬유·신발·세라믹·소비재 산업은 저렴한 수입품과 더욱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국내 제조업체들이 시장점유율을 잃으면서 생산 감소가 불가피해졌다”고 말했다.

생산 감소로 많은 기업이 인력 감축을 통해 비용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타주딘 교수는 “기업 활동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국내 기업이 해고를 통한 인력 감축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여러 경제기관은 2026년 하반기에도 해고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제조업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조업에서는 추가로 8,700~1만2,1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됐다. 이어 서비스업에서 3,300~4,500개, 농업 일부 부문에서 약 3,300~3,6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타주딘 교수는 특히 제조업·의류·신발·세라믹·전자·자동차·소매·물류 산업이 글로벌 공급망 혼란, 생산비 상승, 수요 약화에 가장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의 노력이 아직 해고 사태를 완전히 억제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책 당국과 기업, 노동조합 간의 더욱 강력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타주딘 교수는 정부의 해고대책 태스크포스(TF)가 세제 혜택, 노동집약적 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국내 제조업체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수입품에 대한 감독 강화 등의 전략적 조치를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기업에는 해고를 최후의 수단으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기업은 해고에 나서기 전에 근로시간 단축, 교대근무제 시행, 신규 채용 제한, 초과근무 축소, 희망퇴직 시행 또는 인력 감축 이외 분야의 경영 효율성 개선 등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데일리인도네시아]



PT. Indokon Multi Sarana는 실내·실외 비디오트론 분야에서 인도네시아 No.1 선도 기업으로, 인테리어 시공 전문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부 및 민관을 아우르는 다양한 전략적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온 풍부한 경험과 탄탄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PT. Indokon Multi Sarana

신뢰할 수 있는
비디오트론 솔루션 & 인테리어 시공
전문 기업

PT. Indokon Multi Sarana는 정밀한 기획, 프리미엄 자재, 그리고 전문적인 시공 기준을 바탕으로 기능성과 미적 가치, 높은 완성도를 갖춘 비주얼 및 공간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선명한 디스플레이, 내구성 높은 시스템, 그리고 철저한 납기 준수를 실현합니다.

정부 기관을 비롯해 산업 단지, 오피스, 상업 공간, 공공 시설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www.indokonmultisarana.com
(+62)21-2263-2551
Jakarta, Indonesia

“인도네시아 국적 취득 수수료 7,500만 루피아로 인상”



▲인도네시아 여권 [자료사진]

인도네시아 국적을 취득하는데 드는 비용이 현행 5,000만 루피아에서 7,500만 루피아로 인상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 정부 규정에 따라 외국인이 인도네시아 시민권을 취득(귀화)할 경우 최대 7,500만 루피아(약 4,180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반면 인도네시아인이 국적을 가진 포기할 경우에는 최대 500만 루피아(약 278달러)를 납부해야 한다고 20일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법무부의 정부령 제30호(2026년) ‘비조세 국가수입(PNBP)’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적 취득 신청 수수료는 신청 1건당 최대 7,500만 루피아로 정해졌으며, 실제 금액은 귀화 절차의 법적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 반면 자발적인 국적 포기 수수료는 최대 500만 루피아로 책정됐다.

위도도 법무부 일반법무국 국장은 이번 규정이 과거 법무 인권부에서 법무부로 부처 명칭이 변경된 점도 반영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수료 항목은 수백 가지에 이른다”며 “일부는 그대로 유지됐고, 일부는 조정됐다”고 말했다.

위도도 국장은 이번 법규정 개정으로 국가에 기여가 높은 외국인에게는 수수료가 폐지됐다고 밝혔다. 다만 이 규정이 인도네시아 축구대표팀에서 뛰기 위해 귀화하는 축구 선수 등 외국인 선수들에게도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새 규정에 따르면 결혼을 통해 인도네시아 국적을 신청하는 외국인은 신청 건당 2,500만 루피아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또한 국적이 다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속지주의(jus soli)를 채택한 국가에서 태어난 자녀, 복수국적자가 인도네시아 국적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500만 루피아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인도네시아 국적을 회복하려는 신청에는 100만 루피아의 수수료가 적용된다.

[데일리인도네시아]



김재훈의 세무상식

PMK 44/2026 시행, 세무대리 제도가 달라진다

2026년 6월 22일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PMK No.44 Tahun 2026를 공포하면서 세무대리인(Kuasa Pajak) 제도를 전면 개편하였다. 이번 규정은 기존 PMK 229/PMK.03/2014를 폐지하고, Coretax 시스템에 맞는 새로운 세무대리 체계를 마련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번 개정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Pihak Lain(기타 대리인)’ 제도의 신설이다. 그동안 납세자가 세무조사 대응이나 세무신고, 이의신청 등을 대리인을 시키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Konsultan Pajak(세무사)에게 위임하지만 대부분 기업에서는 기업의 내부 담당자나 회계사가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있었을 것이다. 그동안 세무대리와 관련한 규정은 명확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PMK에서는 세무대리인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 Konsultan Pajak(세무사)
- Pihak Lain(기타 대리인)
- Keluarga(가족)

즉, 내년부터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만이 공식적인 세무대리인이 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Pihak Lain이란 누구인가?

PMK에서는 Pihak Lain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세무사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지만, 재무부가 발급하는 등록증(Surat Keterangan Terdaftar, SKT)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납세자의 세무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이다.

SKT가 핵심

앞으로 Pihak Lain으로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려면 반드시

SKT(Surat Keterangan Terdaftar)를 취득해야 한다.

다만 이번 PMK에서는 SKT가 필요하다는 점만 규정하고 있을 뿐,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어떤 자격과 경력을 요구하는지, 시험이나 교육이 필요한지 등은 별도의 재무부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SKT 취득 절차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2026년까지는 경과조치 적용 재무부는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경과규정을 두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자격을 가진 사람은 SKT 없이도 세무대리를 할 수 있다.

– Brevet 자격증 소지자

– 세무 관련 Diploma III 이상 학위 소지자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한시적인 조치이며, 이후에는 SKT 제도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기업들이 준비해야 할 사항

이번 개정은 세무, 회계 법인뿐 아니라 일반 기업에도 영향을 미친다.

특히 예전에는 기업 내부에서 담당자가 세무서와 직접 대응(SP2DK, 세무조사등)을 했었다면 내년부터는 세무사 또는 Pihak Lain으로 등록된 자만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세무대리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특별위임장(Surat Kuasa Khusus) 작성과 함께 Coretax에서 전자 접근권한까지 부여해야 하므로, 기존보다 절차가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될 전망이다.

아직 남아 있는 과제

이번 PMK는 큰 방향을 제시했지만,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김재훈 대표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사항은 후속 규정을 통해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SKT 신청 대상
- 신청 자격
- 필요 경력
- 교육 및 시험 여부
- 신청 절차
- 등록 유지 요건

이 부분이 확정되어야 Pihak Lain 제도가 본격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맺음말

이번 PMK 44/2026은 단순한 세무대리 규정의 개정이 아니라 인도네시아 세무전문가 제도의 큰 변화라고 볼 수 있다. 향후 재무부가 SKT 취득 요건과 절차를 발표하면, 기업과 전문가들이 준비해야 할 사항을 다시 한번 상세히 소개하도록 하겠다.

학력 및 경력

- 핀란드 Aalto University School of Business 경영학 석사(MBA)
- Sertificate Tax Consultant (Konsultan Pajak)
- Brevet A&B, Konsultan Pajak Brevet C from Artha Bhakti)
- 현, 인도네시아 Tax Lawyer (Kuas Hukum Pengadilan Pajak)
- 현, PT. BNG Consulting 및 PT. Kantor Jasa Akuntansi Indonesia 대표
- 현, 중소기업진흥공단 인도네시아 세무 자문 위원
- 현, 코참 국제자문관 및 고충 상담 위원회 세무 자문
- 현, 한인포스트, 월간건설신문(창조), 월간봉제신문(Koga) 세무칼럼

저서

알기쉬운 인도네시아 세법 (2015, 2016, 2018 중소기업진흥공단) 인도네시아진출 우리기업 투자환경 개선보고서 (공저, 2016, Kotra, Kocham)
TEL : 021 522 2739
kimjhoon@bngconsulting.co.kr

**도서출판/인쇄
광 개 토**

카다록
도서출판
브로슈어
스티커
라벨
카렌다
행택
기타

0821-1122-8827
khong3000@gmail.com

HANSHIN

에어 콤프레셔



TANGERANG 본점

유 성 열 : 0812 8037 0303 | Mariono : 0812 8763 965
Email : hanshincompressor@yahoo.co.id
Telp : 021 5949 4000 / 5949 4222
Ruko Tataka Puri Block C1No.25
Jl. Curug Raya Pos Bitung Tangerang 15810

CIKARANG 영업소/AS접수

김 동 찬 : 0821 6400 0365
Ruko Simprug Plaza, Jl. Simprug Raya Blok B2
No. 10 Sertajaya, Cikarang Timur

JEPARA 영업소/AS접수

정 연 오 : 0815 1938 0006
Desa Troso RT. 007 / RW. 010, Kel. Troso
Kec. Pecangaan Jepara Prov. Jawa Tengah

250억 폐의류 R&D, 섬유패션 ESG 새 분기점 될까

AI 선별 · 재생원료화로 EU 규제 대응 본격화 순환소재 확보가 브랜드 · 수출기업 경쟁력 좌우

폐의류 재활용이 섬유패션업계 ESG의 주변 과제에서 수출 경쟁력의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올해부터 폐의류와 폐타이어를 고품질 유용자원 원료로 되돌리는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착수하면서, 국내 섬유패션 산업에도 재생원료 확보와 순환공급망 구축이라는 과제가 본격화됐다. 이번 사업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730억 원이 투입되며, 이 가운데 폐의류 재활용 기술개발에는 250억 원이 배정됐다.

이번 정책의 초점은 단순한 폐기물 처리 개선이 아니다. 기존 폐의류 처리 방식이 중고의류 수출이나 저부가 재활용에 머물렀다면, 정부는 폐의류의 '분리 · 선별 → 전처리 → 재생원료화 → 제품화'로 이어지는 산업형 순환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인공지능 기반 폐의류 분리 · 선별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해 섬유 소재별 선별 · 분류 정확도 95% 이상을 목표로 하고, 폐의류와 폐섬유를 의류, 자동차 내장재, 건축 · 토목자재 등으로 재활용하는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섬유패션업계가 주목해야 할 대목은 이 사업이 ESG 비용 절감 차원을 넘어 EU 환경규제 대응 인프라와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EU는 2025~2030년 에코디자인 작업계획에서 섬유, 특히 의류를 순환경제 전환 가능성이 큰 우선 제품군으로 제시했다.

같은 계획에는 타이어, 가구, 매트리스, 철강 · 알루미늄도 포함



▲폐의류와 폐타이어를 고품질 유용자원 원료로 되돌리는 국가 연구개발 사업이 진행된다. 사진=게티이미지

됐다. 이는 섬유제품이 향후 내구성, 재활용성, 수리 가능성, 재생원료 사용, 제품정보 공개 등의 기준 아래 관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EU의 섬유 전략은 이미 명확한 방향을 보인다. 유럽위원회는 섬유가 1차 원료와 물 사용 압박이 네 번째로 큰 소비 영역이며, 온실가스 배출 압박 기준으로는 다섯 번째라고 설명한다.

또 전 세계 섬유 중 새 섬유로 재활용되는 비중은 1% 미만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EU는 지속가능 · 순환 섬유 전략을 통해 에코디자인, 2차 원료 사용 확대, 유해화학물질 관리, 재사용 · 수선 접근성 확대, 섬유 폐기물 분리수거와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 강화를 추진하고 있

다.

규제의 강도도 높아지고 있다. EU는 지속가능제품 에코디자인 규정(ESPR)에 따라 미판매 의류 · 신발 폐기 금지와 폐기량 정보공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대기업에 대한 미판매 의류 · 신발 폐기 금지는 2026년 7월 19일부터 적용되며, 중견기업은 2030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미판매 소비재 폐기 정보 공개 표준 양식은 2027년 2월부터 적용된다.

이 흐름은 국내 패션기업과 섬유소재 기업에 제품 설계, 데이터 관리, 재생원료 확보라는 과제를 던진다. 혼방물, 염색 · 가공 방식, 지퍼 · 단추 등 부자재 구조는 재활용 가능성을 좌우하고, 디지털 제품여권 도입이 본

격화되면 소재 구성, 원산지, 재생원료 비중, 수선 · 재활용 정보까지 공급망 단위로 관리해야 한다.

동시에 재생원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능력이 ESG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국내 폐의류는 소재 혼재와 오염, 부자재 분리 문제로 고품질 원료화에 한계가 있었지만, AI 선별과 전처리 기술이 고도화되면 폴리에스터, 나일론, 면 등 소재별 재활용 경로를 나눠 의류용 원사와 산업용 소재로 되돌리는 고부가 순환이 가능해진다.

이번 R&D 사업은 브랜드보다 소재 · 리사이클링 · 설비 기업에 먼저 기회를 열 가능성이 크다. 폐의류 선별 자동화, 오염 제거, 섬유 해체, 재생원료 품질

안정화, 재생섬유 제품화 기술을 확보한 기업은 향후 브랜드와 수출 제조기업의 ESG 공급망 파트너가 될 수 있다. 특히 EU 수출 비중이 있는 패션기업은 재생원료 사용 여부를 선언하는 수준을 넘어, 실제 적용 가능한 소재 조달처와 검증 데이터를 확보해야 한다.

다만 과제도 분명하다. 폐의류 재활용이 산업으로 정착하려면 수거 체계, 소재별 분류 기준, 재생원료 품질표준, 가격 경쟁력, 브랜드 적용 수요가 함께 맞물려야 한다. 기술개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패션기업이 단일 소재 설계, 부자재 분리 용이성, 리사이클 원료 사용 기준을 제품기획 단계에 반영해야 하고, 유통기업은 반품 · 재고 · 폐기 데이터를 관리해야 한다. 소비자에게는 수거와 재사용 참여를 유도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출처 : 한국섬유신문

2027년
카렌다 제작
021 5010 4614/5
0858 9060 0962
pt.kwanggaeto@gmail.com
탁상용 / 벽걸이형

빠르고 정확한
명함제작
0858 9060 0962
021 5010 4614~5
pt.kwanggaeto@gmail.com

KYUNGWON is writing the history of Korean air compressors
KYUNGWON Compressor is manufactured in Korea with 100% Korean Technology



KYUNGWON COMPRESSOR
GENUINE PARTS

**KYUNGWON
COMPRESSOR**

경원기계공업주식회사

한국직영점: (주)동부경원세기

TEL: +82-2-465-6308 / 3884 박용환 대표: +82-10-5345-2884
Email: dbkw2000@hanmail.net Web Site: www.dbkw2000.com

인도네시아 대리점: PT.KYUNGWON ARIM INDONESIA

공장 및 사무실: JL. Niaga Industri Blok QQ2 Nomor 11 Kawasan Industri, Jababeka Phase 2, Desa/Kelurahan Pasirsari, Kec. Cikarang Selatan, KAB. Bekasi, Provinsi Jawa Barat
TEL: +62-21-8926-1370 **전상규 법인장: +62-822-5818-8770**
Email: dbkw2000@gmail.com

한국계 꼬리표 지우는 OK금융...
인도네시아선
‘현지기업 금융’ 으로 승부수

한국 기업 의존 대신
인도네시아 현지 기업 · 상업금융 확대

“한국계 기업 대출 없어” ...
독립 심사체계 기반 영업 강화

OK금융 “각지역 특성 · 문화에
최적화 전략 수립해 사업”



▲국내 금융사들의 해외 사업 전략이 변곡점을 맞고 있다. 과거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과 교만을 중심으로 외연을 넓혔다면, 이제는 현지 기업과 개인 고객을 직접 확보하는 ‘로컬 플레이어’ 전략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하는 모습이다.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펼치고 있는 OK금융그룹도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올라탔다. [사진=OK금융그룹]

국내 금융사들의 해외 사업 전략이 변곡점을 맞고 있다. 과거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과 교만을 중심으로 외연을 넓혔다면, 이제는 현지 기업과 개인 고객을 직접 확보하는 ‘로컬 플레이어’ 전략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하는 모습이다.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펼치고 있는 OK금융그룹도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올라탔다. 20일 인도네시아 경제지 콘탄(Kontan)에 따르면 OK금융그룹 계열사인 PT Bank Oke Indonesia(OK Bank Indonesia)는 최근 기업금융 확대 전략의 중심축을 한국계 기업이 아닌 인도네시아 현지 기업으로 옮겼다.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을 따라가는 영업보다 현지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에프디날 알람샤(Eldinal Alamsyah) OK뱅크 준법감시이사는 콘탄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지배주주의 본국인 한국 기업에 대한 대출은 없다”며 “여신은 차주의 신용도와 위험도를 기준으로 독립적으로 심사하고 있으며, 성장은 현지 우량 기업과 상업금융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전략은 실제 영업 지표에도 반영되고 있다. 콘탄은 OK뱅크 인도네시아의 올해 5월 기준 대출잔액이 10조8100억루피아(약 9000억원)로 집계됐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66% 증가했다고 전했다. 최대주주인 OK넥스트가 약 73.3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만, 영업 기반은 한국계 기업이 아닌 현지 시장으로 넓혀가는 모습이라는 평가다.

이는 OK금융만의 변화는 아니다.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외국계 금융회사들은 최근 자국 기업을 지원하는 역할에서 벗어나 현지 기업금융과 리테일 시장 공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업 전략을 재편하고 있다. 콘탄 역시 외국계 은행들이 현지 기업을 핵심 고객으로 삼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내 금융권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도 인도네시아 법인을 통해 현지 기업금융과 디지털 금융을 확대하며 시장 점유율 확보에 공을 들이고 있다. 단순히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수준을 넘어 현지 금융시장 안에서 경쟁력을 입증해야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반영된 결과다. 업계에서는 해외 금융사의 경쟁 구도가 ‘한국 기업 지원’에서 ‘현지 시장 점유율 확보’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해외 사업의 성패 역시 현지 고객 기반을 얼마나 넓히느냐에 달린 만큼, 국내 금융사들의 현지화 전략은 앞으로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OK금융 관계자는 “OK금융그룹은 국내에서 축적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각지역의 특성과 문화에 최적화된 전략을 수립하여 현지인을 대상으로 금융사업을 전개하고 있다”며 “또한 지속적인 현지 환경 및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변화에 대해 민첩하게 반응하여 현지 사업 포트폴리오를 넓혀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 아시아에이

Create Well Life

CERAGEM

“건강한 척추관리가 바로 세월을 이기는 힘입니다!”

비만
만성질환개선
신경통

피로는 만병의 근원!

매일 올바른 척추관리는
활력넘치는 일상생활을 보장합니다

ECHOM 제도 실시

Master V3를 가정에서 1개월동안
충분히 효능을 느껴보시고 결정하세요!



위치 : Ceragem Tangerang center / Ceragem BSD center
문의처: LEE TAE JU 62 812 9276 7549 / MELINDA +62 858 8292 0201

탁상용 카렌다 벽걸이 카렌다 가족 카렌다 동아리, 친목 카렌다



2027
달력



카렌다 제작을
시작으로
2027년(丁未年)을
미리 준비하세요!

카렌다 제작 전문업체



도서출판/인쇄
광 개 토

CREATIVE DESIGN COMPANY

SILK ROAD

제작 의뢰 : 0858 9060 0962, 0821 1122 8827
021 5010 4614 / 15
pt.kwanggaeto@gmail.com

광개토에 카렌다 제작을 의뢰하시면

1. 탁상용, 벽걸이용 카렌다를 고객의 기호에 맞게 디자인, 제작해 드립니다.
2. 약 20만컷의 고해상도 이미지를 무료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3. 촬영을 원할 경우 출장 촬영 가능합니다.
4. 귀사의 현장과 생산제품, 설비등의 이미지로 차별화된 제작 가능합니다.
5. 제작전 사전 디자인된 카렌다를 PDF로 먼저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6. 가족카렌다, 동아리, 친목카렌다 제작시 최소수량 5권부터 가능



“기능성 섬유, 의류 넘어 전략 소재로” ... 북미 수요 · 태국 생산망 연계 방안 제시

기능성 섬유의 적용 범위가 스포츠 의류를 넘어 의료 · 헬스케어, 자동차 내장재, 보호복, 산업용 필터와 스마트 텍스타일로 넓어지면서 소재 기업의 해외시장 접근 방식도 달라지고 있다. 가격 중심의 수출 경쟁보다 성능과 공급 안정성, 환경성과 추적 가능성을 함께 입증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RX ISG KOREA는 7월 16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SEOUL SEMINAR 2026’에서 태국 ·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기능성 섬유 산업의 공급망 변화와 시장 진출 방안을 다뤘다.

이날 류원우 PM은 ‘기능성 섬유가 만드는 글로벌 시장의 변화’를 주제로 발표하며 북미를 수요와 바이어가 집중된 시장으로, 태국을 제조 파트너 발굴과 아세안 확장을 위한 생산 거점으로 구분했다. 그는 기능성 섬유가 더 이상 의류에 한정된 소재가 아니라 여러 산업의 성능과 안전, 생산 효율을 좌우하는 산업용 소재로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류원우 PM은 “앞으로 5년은 기능성 섬유 공급망이 재편되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며 “한국 기업도 가격 경쟁자보다 기술과 솔루션을 제공하는 파트너로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 섬유 생산량 증가...폴리에스터 중심 구조 지속

발표에서는 글로벌 섬유 생산 구조와 소재별 시장 변화가 먼저 소개됐다.

Textile Exchange의 ‘Materials Market Report 2025’에 따르면 전 세계 섬유 생산량은 2023년 약 1억2천500만 톤에서 2024년 약 1억3천200만 톤으로 증가했다. 이 가운데 폴리에스터 생산량은 약 7천770만 톤으로 전체의 약 59%를 차지했다. 현재 추세



▲RX ISG KOREA 류원우 PM이 발표하고 있다

가 이어질 경우 2030년 세계 섬유 생산량은 약 1억6천9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류 PM은 폴리에스터가 가격과 생산 규모, 공급 안정성 측면에서 기반을 갖추고 있어 단기간에 시장 비중이 크게 줄기는 어려울 것으로 봤다. 새로운 소재가 시장에 진입하려면 친환경 메시지만 강조하기보다 기존 소재를 대체할 수 있는 성능과 공급 능력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재생 셀룰로오스 섬유와 바이오 기반 소재도 성장 가능성이 있는 분야로 거론됐다. 다만 바이오 소재는 생산 규모와 단가, 양산 안정성 측면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어 상용화 수준과 적용 분야를 구분해 접근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앞으로 브랜드와 소재 기업의 경쟁력은 단순히 친환경이라는 표현에 달려 있지 않다”며 “성능과 공급 안정성, 가격 경쟁력뿐 아니라 실제 탄소 감축 효과를 어떻게 측정하고 입증할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공급망 다변화와 추적 가능성 요구 확대, 글로벌 브랜드의 조달 전략도 변화하고 있다. 지정학적 리스크와 물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특정 국가에 생산을 집중하기보다 ‘차이나 플러스 원’과 지역별 복수 공급망을 검토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과정에서 ESG 기준과 원료 인증, 생산 이력 관리와 트레이서빌리티도 공급사 선정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류 PM은 “북미 바이어는 소재 자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준으로 생산됐고 이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지를 함께 확인한다”며 “한국 기업은 고기능성 소재와 인증, 추적 데이터를 하나의 제안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북미, 브랜드 · 리테일러 중심의 수요시장

북미 시장은 브랜드와 리테일러, 디자이너, 제품 개발자, 소재 소싱 담당자 등 구매 의사결정자가 집중된 시장으로 소개됐다.

현지 바이어들이 주로 확인하는 요소로는 경량성과 내구성, 방수 · 투습 기능, 재활용 또는 인증 원료 사용 여부, 공급 안정성, 생산 이력 관리 등이 제시됐다. 이에 따라 범용 원단을 가격 중심으로 제안하기보다 스포츠, 아웃도어, 보호복, 헬스케어 등 구체적인 용도에 맞춘 기능을 설명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북미 시장 진입 플랫폼으로는 RX가 운영하는 ‘Functional Fabric

Fair’가 소개됐다. 이 전시회는 기능성 원단과 소재 기술, 부자재를 다루는 전문 소싱 행사로, 2026년에는 뉴욕과 포틀랜드에서 관련 일정이 운영된다. 공식 안내에 따르면 뉴욕 행사는 7월 7일부터 9일까지, 포틀랜드 행사는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열리는 일정으로 마련됐다.

이어 첫 참가에서는 시장 검증과 바이어 피드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이후에는 샘플 개선과 인증 보완, 반복 상담을 통해 거래 가능성을 높이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태국, 소비시장보다 제조 협력 거점으로 접근

태국 시장에 대해서는 저임금 생산기지라는 기존 인식에서 벗어나 아세안 제조 공급망의 연결 거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태국은 자동차와 전자, 의류기기, 식품가공 등 제조 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기능성 섬유 역시 의류 생산에만 머물지 않고 자동차 소재, 헬스케어 제품, 산업용 섬유 등으로 연계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류 PM은 “태국은 완제품을 판매하는 소비시장만으로 보기보다 제조 파트너를 찾고 아세안 지역으로 사업을 확대하는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관련 전시회로는 방콕에서 열리는 ‘GFT’가 소개됐다. GFT는 봉제, 자수, 편직, 직조, 프린팅과 후가공 등 의류 · 섬유 제조에 필요한 장비와 기술을 다루는 제조 중심 행사다. 2026년 행사는 7월 초 방콕 BITEC에서 열렸으며, 전시 범위에는 생산 장비뿐 아니라 원사, 원단, 자동화 및 공정 기술이 포함됐다.

Functional Fabric Fair가 북미 브랜드와 소재 수요를 확인하는 소싱 플랫폼이라면, GFT는 태국과

아세안 지역의 제조기업 및 생산 파트너를 찾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설명이다.

북미에서 수요와 제품 방향을 확인한 뒤 태국에서 생산 협력과 샘플 공정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연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시 지원도 최소 3년 로드맵 필요”

발표에서는 해외 전시회 지원 사업의 운영 방식도 다뤄졌다.

류 PM은 전시 참가비 지원에만 초점을 맞추면 실제 수출이나 공급망 편입으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참가 전 교육과 제품 준비, 현장 상담, 바이어 후속 대응, 성과 관리가 하나의 과정으로 연결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일회성 참가보다 최소 3년 단위의 단계적인 접근을 제안했다. 1년 차에는 북미 전문 전시회에서 시장성과 바이어 반응을 검증하고, 2년 차에는 피드백을 반영해 재참가하는 동시에 태국 등 제조 중심 전시회에서 파트너를 발굴하는 방식이다. 3년 차에는 공급 확대와 생산 협력, 공동개발 등으로 관계를 구체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담 이후 샘플 제공과 기술 협의, 인증 대응이 이뤄지지 않으면 전시 참가 성과를 이어나가기 어렵다”며 “기업 내부의 후속 대응 역량까지 지원 기준과 프로그램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은 한국 기능성 섬유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새로운 역할을 확보할 기회이기도 하다”며 “기술과 검증 데이터, 제조 협력 역량을 갖춘 기업이 북미 수요시장과 아세안 생산망을 연결하는 파트너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밝혔다.

[산업일보]




www.cosmofamily.com

더 가볍게, 더 강하게.
인도네시아 최초 SNI 인증 GFRP 보강근 제조사.
부식 없는 철근 대체 솔루션
Cosmo GFRP Indonesia.

Office : Menara Bidakara 1, 21st Floor, Unit 2152 & 2156 Jl. Jenderal Gatot Subroto Kav. 71-73 Kelurahan Menteng Dalam, Kecamatan Tebet Kota Jakarta Selatan, DKI Jakarta 12870

Factory : Kawasan Industri Suryacipta City of Industry, Jalan Surya Madya XIV, Kavling I-67A3, Kabupaten Karawang, Provinsi Jawa Barat 41362

Tel. : +62 811 9630 8805
Email : jaydentyp@cosmogfrp.co.id



GFRP WIREMESH



GFRP REBAR

2026년도 KOGA 연회비 수입현황 (01/01~06/30)

NO.	회원사명	입금일자	회장단	상임사	일반사	찬조금
1	ANUGERAH ABADI BERSAMA	2026.01.28			5 JT	
2	WOO SHIN GARMENT	2026.01.28			5 JT	
3	KAHO INDAH	2026.01.28			5 JT	
4	CITRA UNGGUL PERKASA	2026.01.28	20 JT			
5	UNGARAN INDAH BUSANA	2026.01.28			5 JT	
6	LEADERS WORLD	2026.01.28			5 JT	
7	SEYANG ACTIVEWEAR	2026.01.28			5 JT	
8	GOLDEN GARMENTS	2026.01.29			5 JT	
9	DAE DONG	2026.01.29			5 JT	
10	YEONHEUNG MEGA SARI	2026.01.29			5 JT	
11	GAYA MAKMUR	2026.01.29			5 JT	
12	ING INTERNATIONAL	2026.01.29			5 JT	
13	INKORDAN	2026.01.30		30 JT		
14	JM TECH	2026.01.30			5 JT	
15	DASAN PAN PACIFIC	2026.01.30			5 JT	
16	TAE WON INDONESIA	2026.01.30			5 JT	
17	MUTIARA BUSANA INDAH	2026.02.02	20 JT			
18	MYUNG SEONG MACHINER	2026.02.04			5 JT	
19	DREAMWEAR	2026.02.04			5 JT	
20	TP.INC TRADING JAKARTA	2026.02.05		30 JT		
21	GAYA INDAH KHARISMA	2026.02.05	20 JT			
22	SOLVE IT	2026.02.06			5 JT	
23	OROM CONSULTING	2026.02.06	20 JT			
24	MULTI WELL EMBROIDERY	2026.02.09			5 JT	
25	KNH GAMINDO JAYA	2026.02.09			5 JT	
26	MUARA TUNGGAL	2026.02.09			5 JT	
27	PT.SCENIC	2026.02.09			5 JT	
28	LIMANTARA INDAH MAKMUR	2026.02.09			5 JT	
29	BLUE ROSE NARADO	2026.02.10			5 JT	
30	ANUGERAH ABADI MAGELANG	2026.02.10			5 JT	
31	MINU GARMENT SUKSES	2026.02.10			5 JT	
32	HANSOL PLEATS	2026.02.10			5 JT	
33	C- SITE TEXPIA	2026.02.11			5 JT	
34	WINNERS INTERNATIONAL	2026.02.12		30 JT		
35	PERMATA GARMENT	2026.02.12			5 JT	
36	RINA JAYA GARMENT	2026.02.13			5 JT	
37	MAJUJEL	2026.02.13			5 JT	
38	GLOBAL BUSANA INTERNATIONAL	2026.02.13			5 JT	
39	SJ CONSULTING	2026.02.18			5 JT	

NO.	회원사명	입금일자	회장단	상임사	일반사	찬조금
40	ZIBEN INDONESIA	2026.02.20			5 JT	
41	WOORI SUKSES APPAREL	2026.02.21			5 JT	
42	BINTANG GLOBAL ABADI	2026.02.23			5 JT	
43	PURNAMA ASIH SUR	2026.02.24			5 JT	
44	KG FASHION	2026.02.24			5 JT	
45	DONG JUNG INDONESIA	2026.02.25			5 JT	
46	YB APPAREL	2026.02.25			5 JT	
47	PT.ACE	2026.02.25			5 JT	
48	DOOSAN CIPTA BUSANA JAYA	2026.02.25		30 JT		
49	DONG IL	2026.02.26			5 JT	
50	SUKWANG INDONESIA	2026.03.05		30 JT		
51	HOKI MACHINE INDONESIA	2026.03.05			5 JT	
52	UNICORN	2026.03.06			5 JT	
53	DOORI LESTARI GARMENT	2026.03.10			5 JT	
54	JUN H INDONESIA	2026.03.10			5 JT	
55	HESED INDONESIA	2026.03.17	20 JT			
56	DONG YANG NISUSINDO	2026.04.01			5 JT	
57	BANGUN MAJU LESTARI	2026.04.09	50 JT			
58	DAYUP INDO	2026.04.13			5 JT	
59	IMPIAN ANUGERA LESTARI	2026.04.16			5 JT	
60	KARYA TRI ABADI	2026.04.25			5 JT	
61	JS JAKARTA	2026.04.30		30 JT		
62	HARAPAN GLOBAL APPAREL	2026.05.04			5 JT	
63	YONGJIN	2026.05.04			3,5 JT	
64	SUNGBO	2026.05.04			5 JT	
65	YURI INDO APPAREL	2026.05.04			5 JT	
66	GLOBAL TRIMS CREATOR	2026.05.05			5 JT	
67	PETRASAKTI MADYATAMA	2026.05.07		30 JT		
68	SEYOUNG INDUSTRY	2026.05.08			5 JT	
69	PT.SUCI PINTAK	2026.05.18			5 JT	
70	PT.KOTEK INDAH	2026.05.20			5 JT	
71	INDO BOX UTAMA	2026.05.20			5 JT	
72	HANSAE	2026.05.21		30 JT		
73	TA GLOBAL INDONESIA	2026.05.26			5 JT	
74	KOREA VILENE	2026.06.05			5 JT	
75	DK INTERNATIONAL	2026.06.08			5 JT	
76	SAM SAM JAYA GARMENT	2026.06.10			5 JT	
77	GREEN ON INDONESIA	2026.06.24			5 JT	
78	SEJIN GLOBAL INDONESIA	2026.06.26			5 JT	
79	DELTA MATE MAJALENGKA	2026.07.13			5 JT	

씨사이트 “GAP 주문 증가에 인도네시아 공장 가동률 150% ↑”



씨사이트는 주요 고객사의 주문 증가에 힘입어 올해 들어 인도네시아 공장 가동률이 크게 높아졌다고 7일 밝혔다. 회사 측은 가동률이 전년의

250% 수준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씨사이트의 인도네시아 공장은 GAP의 의류의 위탁생산을 전담하고 있다. 이 브랜드의 주문 확대와 라이선서 오더 증가로 생산량을 늘리고 있는 것이다. 인도네시아와 과테말라 현지 법인에 품질관리 전담 조직을 운

영하는 씨사이트는 GAP 벤더 평가에서 최상위 등급인 ‘골드(Gold)’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의류 OEM 산업은 통상 3분기에 패션워크 시즌 물량이 집중되기에, 씨사이트는 3분기 성수기 진

입에 따라 생산성과 매출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한경]

중고 봉제기계, 봉사 및 악세사리, 매 입

PT. SHINHAN GLOBEL

SHIN H. G

+62 858 1369 4992
Kakao ID 6shg10



PT. BIC JAYA INDONESIA

작업환경측정(K3) / 근로자 건강검진(MCU) / 사내클리닉(In House Clinic)부문
인도네시아 정부(DEPNAKER) 대행기관

인도네시아 노동부 전략적 파트너 기관,
한국 기업들의 든든한 산업보건 환경 지킴이!



노동부 장관 BIC 방문 (2022.12)



노동부 차관 BIC 방문 (2023.12)



노동부 전략적 파트너 임명 (2024.5)



수하르토 대통령 BIC 주부산 인도네시아 명예영사관 지정 (1993~2007)



UTAMAKAN KESELAMATAN
DAN KESEHATAN KERJA

BIC은

- 작업환경측정(K3)/산업보건 환경분야에서 인도네시아 최초 한국계 인도네시아 정부(노동부) 대행기관
- 인도네시아 노동법상 근로자 10명 이상 고용업체 연 1회 작업장 환경측정/근로자 건강검진 법적 의무사항
- 한국에서 노동부 지정 산업보건기관 운영을 통해 풍부한 경험과 기술, 노하우 축적
- 작업환경 측정, 근로자 건강검진, 사내 클리닉 (In House Clinic)운영을 패키지로 일괄 수행
- 40여년간 한국에서 부산 인도네시아 명예영사,관광부,노동부,할랄청,대표부 역할을 통해 인도네시아 정부와 각별한 협력관계 유지, 우리 기업들의 대 인도네시아 정부 애로사항 해결지원

www.bicjayaindonesia.com

JAKARTA : Wisma Staco 6F, Jl. Raya Casablanca Kav. 18 +62 21 3049 0114 bicjaya.id@gmail.com
KOREA :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357 부산 인도네시아센터(BIC) +82 51 365 0041 www.bic-korea.com

인도네시아, 국제금융센터 설립 법안 통과

인도네시아 하원(DPR)은 국제 금융센터(이하 PFI) 설립을 위한 법안을 21일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통해 해외 자본 유입을 확대하고 장기적인 경제성장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며, 후보지로는 발리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뿌르바야 유디 사데와 재무장관은 이날 하원에서 “PFI는 해외 자본 유입과 지속 가능한 포트폴리오 투자를 유치해 국가 경제 규모를 확대하고, 장기적인 성장 재원을 확보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가 경제가 더욱 확대되고 빠르게 성장하면 인도네시아 전역의 국가 발전에도 장기적으로 큰 혜택을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국제금융센터의 제도적 운영 체계와 함께 각종 세

제 혜택을 규정하고 있다고 모하마드 헤갈 하원의원이 설명했다.

또 국제금융센터 내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처리하기 위한 중재 기구와 사건을 심리·판결할 수 있는 특별법원도 설치될 예정이

다. 다만 법안 전문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국제금융센터 입지로는 발리가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경제조정부는 지난 5월 발표한 성명을 통해 발리를 PFI 후보지 가운데 하나로 제시한 바



▲자카르타 SCBD 야경(사진=자카르타 경제신문)

있다.

쁘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은 적

극적인 재정지출 확대를 바탕으로 2029년까지 경제성장률을 8%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한편 인도네시아 통계청(BPS)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인도네시아 경제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5.6%를 기록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일주일 넘게 불타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쓰레기 산’

인도네시아의 한 쓰레기 산에서 일주일 넘게 불길이 잡히지 않고 있다.

수도 자카르타 외곽의 자티와링인 매립지에서 발생한 이번 화재가 15헥타르(15만㎡) 이상 번지면서 일대는 짙고 유독한 연기로 뒤덮였고, 주민 수백 명이 대피했다.

보건 당국은 대기 오염으로 인한 호흡기 질환이 급증했다고 보고했다. 소방 당국은 헬기, 물탱크차, 불도저, 드론 등을 투입



하며 이 거대한 불길을 잡고자 애쓰고 있다.

이번 주 안에는 화재가 진압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으나, 환경운동가들은 이번 화재가 “시스템 단위의 방치가 낳은 생태적 재앙”이며, 인도네

시아의 갈수록 심각해지는 폐기물 위기의 한 단면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이번 화재는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처음 발생했다. 초기에는 작은 불꽃으로 시작했으나, 강한 돌풍을 타고, 쓰레기가 높이 쌓여 있거나 소방대원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구역 등 여러 곳으로 번져나갔다.

그 후 일주일 동안 짙은 검은 연기가 주변 마을을 뒤덮었다. 현지 환경부의 측정 결과, 매립지

주변의 대기질은 한때 위험 수준에 도달했으나, 최근 며칠간 다행히 다소 완화됐다.

지역 주민 사르마나(45)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유독한 연기가 집안으로 밀려 들어와 아이를 데리고 대피할 수밖에 없었다고 호소했다.

그는 “코도 따갑고, 계속 기침이 났고, 콧물이 흐르고, 숨을 쉴 수 없었다...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 집을 버리고 빠져나왔다”고 덧붙였다. [NEWS KOREA]



INDONESIA OFFICIAL DISTRIBUTOR

경원기계공업(주) 인도네시아 직영대리점

KYUNGWON AIR COMPRESSOR — OFFICIAL GENERAL DISTRIBUTOR FOR INDONESIA

에어 컴프레서



(한국본사) 인니직영대리점 인증서

30+

30년간 축적된
압축공기 기술력



100%

정품부품
인니전지역 A/S가능



이 광 선 TEL 0812 100 77732
김 병 남 TEL 0852 8834 7666



WEBSITE
kwcompressor.id